

“호남 산재한 中 관련 유적 관광자원화해야”

화순 주자묘·광주 정율성 생가·해남 황조별묘 등 광주·전남·전북 ‘호남권 관광 컨퍼런스’서 제기

화순 주자묘, 광주 정율성 생가, 해남 황조별묘 등 호남권에 산재한 중국 관련 유적을 관광자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가 17일부터 이틀간 목포에서 주최한 ‘호남권 관광 활성화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중국 관광객의 여행행태를 비교해 관광자원을 보존·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중·일 관광전문가, 여행사, 여행기자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왕남 중국 광저우 중산대학 교수는 기초 강연에서 “중국인의 한국 관광은 평균 수입 증가, 짧은 거리, 유리한 환율 및 세금 환급정책, 비자정책, 한류 등의 요인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중국의 관광지 및 서비스에 비해 질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특함과 확실성을 갖고 중국과의 연관점을 발굴해 친근

감과 인지도를 넓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했다.

최석호 레저경영연구소장은 주제발표에서 화순 주자묘, 정율성 생가, 해남 황조별묘 등 호남권에 산재한 중국 관련 유적 관광자원화와 중국인 관광객 호남 유치 방안을 발표했다. 최 소장은 호남지역의 중국 관련 자원을 광산 노씨, 정율성 등 ‘인물’, 화순 운주사 등 ‘경관’, 화순 주자묘, 해남 황조별묘 등 ‘유교’, 묘도, 고금도 등 ‘임진왜란’ 등의 항목으로 분류한 뒤 관광자원 연계, 인프라 연계, 시장 연계, 추진 체계 연계 등을 통해 광주, 전남·북이 협력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문화관광루트, 문화관광코스 설정을 시작으로 통합적 관광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하며, 이를 통해 호남권의 새로운 관광 가치와 시장을 발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17일 관광기관 및 단체, 학계 관계자, 여행사 대표, 여행전문기자, 여행작가 등과 함께 목포 유달산권 관광지를 둘러보며 18일에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과 전주 한옥마을을 답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공동으로 ‘호남권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해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에 나서고 있다.

／최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연구원장 공모 18일~다음달 8일까지

광주·전남연구원이 임명 20일만에 사퇴한 허성관 전 원장의 후임을 공모한다.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원장 응모서류를 접수한다. 응모에는 대학교 정교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공무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민간 연구기관 등의 재직 경력과 관련한 자격이 필요하다.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1차 서류 심사, 2차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한다. 후보자는 허 전 원장 임명 반대 여론의 진원지였던 광주·전남 의회와 합동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원장 임기는 3년이며 최초 임용시 차관급 보수를, 이후 매년 성과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중 창사시서 ‘정율성 음악축제’ 성료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 ‘정율성 음악축제 음악공연’이 지난 17일 저녁 중국 창사(長沙)시 후난대극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윤창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공연단,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무등산 동적골 개발행위 가능해지나

광주시, 집단취락지구 추진 일부선 난개발 우려 반발도

광주시가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인 일명 동적골 일대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주택 신·증축이 가능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반발도 만만치 않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무등산 동적골로 잘 알려진 동구 운림동 750번지 일대 2만8천500여㎡를 집단취락지구로 바꾸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중이다. 광주시는 현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동적골은 무등산 입구에 자리잡은 마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마을 지구로도 지정돼 있고, 이 일대는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동구청은 매년 봄이면 이 일대에서 튼실 꽃동산을 개장하는 등 작은 축제를 열고 있으며 1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현재 거주하거나 다른 개발지역내에 사는 주민이 이주할 경우 주택 신·증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동적골 용도지구 변경 여부는 빨라야 내년 3-4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지난 2년간 잘못 부과한 지방세 20만건에 200억원 넘었다

광주시가 지난 2년간 잘못 부과한 과오납(過課納) 건수가 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도 200억원을 훌쩍 넘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8월 말까지의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각각 11만2500여건과 8만3000여건으로 모두 19만5500건에 달했다.

세액으로는 올해만 122억1800만원으로 지난해 과오납 세액 119억1000만원을 넘어섰다.

세액감면이나 징수방법 변경 등 국제경정 결정으로 환급대상이 된 과오납 건수가 17만6921건으로 90.5%를 차지했다. 납세자 착오는 1만7552건에 세액은 67

억4100만원, 세무당국의 부과착오는 1016건에 1억800만원이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확인된 과오납 건수는 32건에 세액은 2억원이다.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 건수도 적지 않아 지난해에는 9049건, 올해는 8월말 현재 1만3468건이었다. 세액으로는 지난해가 1억100만원, 올해는 6억3500만원에 달했다.

과오납은 더 많이 낸 과납(過納)과 잘못 납부한 오납(誤納)을 합한 것이다. 과오납은 조세의 초과납부·이중납부·착오납부 뿐만 아니라 세액감면 결정결정이나 부과처분사법부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파리, 한송이 꽃의 애도에 부쳐

함정임 칼럼



‘자기 앞의 생’이라는 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설가 에밀 아자르는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유대계 프랑스인이자이다. 그는 열네살 때 어머니를 따라 프랑스 남부 지중해안의 니스에 정착했다. 세계적인 휴양지로 알려진 니스는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형학적으로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흘러온 이민자들과 역사적으로는 이탈리아, 러시아,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형성된 이민자들의 혼종 공간이다.

에밀 아자르는 로맹 가리라는 이름으로 이미 ‘하늘의 뿌리’라는 작품으로 프랑스 최고 권위의 소설상인 공쿠르상을 수상한 작가의 가명이다. 흥미로운 것은 로맹 가리 역시 가명이고, 에밀 아자르라는 또다른 가명 이외에도 몇 개 더 있다는 점이다. 에밀 아자르 또는 로맹 가리의 본명은 로만 카체브(Roman Kacew), 두 개의 가명으로 두 번의 공쿠르상을 수상했다.

작가는 매번 새로운 작품으로 새로운 평가를 희구하는 속속들이다. 에밀 아자르 또는 로맹 가리라는 그러한 작가의 속살을 광적으로 표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가명에 대한 집착은 흠뻑이 프랑스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긴장감과 정통 프랑스어 구사에 대한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생(生)을 건다는 것,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 허무의 심연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모라는 소설의 눈으로 펼쳐지는 ‘자기 앞의 생’의 무대는 파리 북동쪽 20구 벨 빌(Belle Ville)이라는 동네이다. 11월 13일 동시다발적 테러가 가해진 파리 10구, 11구와 이웃해 있으며 아랍계와 아프리카계의 가난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벨빌의 뜻은 ‘아름다운 동네’이다. 나는 여섯 살 아이를 데리고 모모가 살았던 이 벨빌 근처의 신축 아파트에 잠깐 산 적이 있었다. 그 후 에디트피아트 박물관이나, 피아프와 프루스트와 발자크와 소갱 등이 묻혀 있는 페르라세즈 묘지, 레퀴블리크

광장 뒤편으로 흐르는 생마르탱 운하에 위치한 소설 무대 북호털을 방문하기 위해서가 아닌 경우에는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다. 몇 차례 경험한 벨빌의 허름하고 소외된 분위기가 내 마음을 한없이 위축시킨 이유가 컸다.

프랑스가 관용(톨레랑스, Tolérance)의 태도와 정신을 지침으로 삼아온 것은 구성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들과 이방인들이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20세기 현대작가들의 면면을 보면, 혼혈 이민자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앞에 소개한 에밀 아자르 또는 로맹 가리는 러시아계 유대인이고, 1960, 70년대 프랑스 문단의 새로운 물결로 떠올랐던 조르주 페렉은 폴란드계 유대인으로 아우슈비츠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 출신이다. 그는 벨빌의 고모네에 맡겨져 성장했다.

로맹 가리와 조르주 페렉이 이민자 출신의 작가라면, 작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파트릭 모디아노는 이탈리아인 아버지와 벨기에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파리에서 자란 혼혈 프랑스인이고, 역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르클레지오와 알베르 카뮈도 혼혈 프랑스인이다. 르클레지오는 영국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니스에서 자랐고, 알베르 카뮈는 프랑스인 아버지와 스페인인 어머니 사이에 알제리에서 태어난 피에-누아르(북아프리카 프랑스 식민지 태생 프랑스인)이다.

이들 이민자와 혼혈 프랑스인 외에, 이방인의 계보도 있다. 파리는 세계 이방인의 수도라 부를 만큼, 도심의 대형 공동묘지들에는 파리에 귀화해 작품 활동을 하다가 영원히 파리에 묻힌 이방인들이 많다. 아일랜드 출신 부조리극작가 베케트와 루마니아 출신 이오네스코는 몽파르나스 묘지에 묻혀 있고, 뉴욕계 수잔 손택은 유언에 따라 사후 그곳의 일원이 되었다. 귀화한 이방인 중 생전 작가로 밀란 쿤데라가 대표적이다.

파리가 이방인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것은, 경계를 넘나들며 숨 쉬기 자유로운 곳이라는 뜻이다. 2015년 1월과 11월, 파리는 거듭되는 무자비한 테러로 피를 흘리고 있다. 파리지앵들은 충격과 분노, 슬픔과 공포를 가슴에 묻고 한 사람 한 사람 총 대신 꽃을 들고 처연히 거리로 나서고 있다. 그것만이 이념, 종교, 민족 간의 뒤틀린 복수와 광기, 테러를 응징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듯이.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다.

〈소설가, 동시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밝은광주안과 의원

ICL(안내렌즈삽입술)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정체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인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종-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